

## 2002년식 '마티즈' 360만원에 산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지역을 비롯한 국내 중고차시장에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고유가와 불경기 등의 여파로 대형차를 중심으로 중고차의 '몸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입은 가급적 설날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고차는 매년 1월 연식이 바뀌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세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으로 중고차 시세는 설 이후 강세를 띠는 점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에는 1월이 적기로 꼽힌다.

◇고유가 여파 국산 대형차 가격 하락세 '뚜렷' = 25일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고유가와 경기침체, 연식변경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대형차와 SUV의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식 '뉴 다이너스티'는 1천150만원으로 12월에 비해 150만원 가량 하락했으며, 같은 연식의 '에쿠스 JS 리무진'은 1천800만원으로 한 달새 50~100만원 떨어졌다.

또 SUV인 2004년식 '뉴렉스탑'은 1천400만원으로 30~50만원 떨어졌고, 2004년식 '투싼

### 중고 대형차·SUV 가격 하락세 지금이 적기...설 지나면 오를 듯

MX'는 1천300만원으로 50만원 가량 하락했다. 이는 고유가와 불경기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가 급감한 데다 딜러들이 연식 변경을 고려해 보유 차량을 대거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차의 경우 2002년식을 기준으로 '아토스 까미'가 340만원, '비스토 ESS'는 330만원, '마티즈 MD'는 360만원 등을 유지하고 있어 중·대형차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연식변경·병행수입 등으로 수입차도 하락세 = 수입 중고차의 가격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연식변경으로 가격이 떨어진 데다 지난 연말 수입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해 취득·등록세 등을 지원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함께 하락한 것이다.

특히 SK네트웍스가 지난해 말 수입차 병행수입을 통해 기존 수입사들 보다 15~25% 가량 싸게 판매하면서 고급 수입차의 가격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2007년식 BMW '328i'의 거래가는 4천900만~5천3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0만원 정도 하락했다. 같은 연식의 '740Li'는 9천100만~1억1천으로 2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벤츠는 2007년식 '뉴S350'이 1억1천500만~1억2천300만원으로, 300만~500만원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07년식 아우디 'A6'도 4천600만~4천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2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과 연초에는 연식 변경과 신차업체의 가격할인 등으로 중고차값이 하락세를 나타낸다"면서 "그러나 설 이후인 2월부터는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차 쇼핑도 인기 =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선택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매에 나서야 한다. 새 차와 달리 따지고 조회해

볼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존 중고차매매상과 함께 대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운영중인 중고차사이트를 활용해 중고차 구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자동차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SK엔카(www.encar.com)'는 120만명의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운영중인 중고차사이트를 활용해 중고차 구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자동차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GS카넷(www.gscarnet.com)'은 스포셜코너를 통해 수입명품 차량, 특가차량, 인기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한다. 또 중고차 시세정보가 함께 제공돼 시기별 중고차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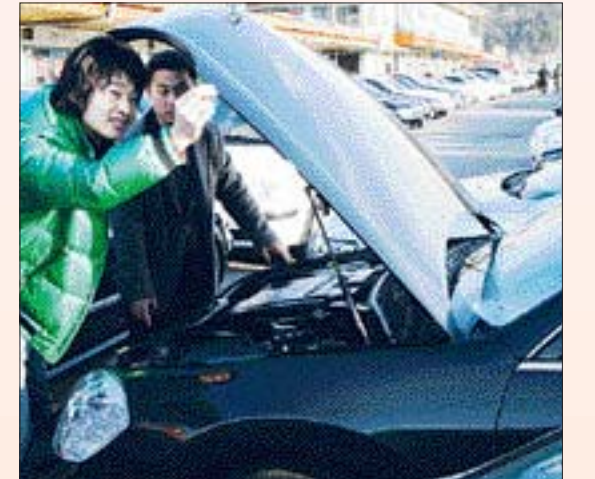
'오토인사이드(www.autoinside.co.kr)'는 고객이 중고차 매매 정보를 보면서 해당 차량의 사용기간, 선수금별 할부금액 및 한도 조회,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중고차 안전구입 10계명

중고차는 무턱대고 구입하는 상품이 아니다. 신차와 달리 차량 미다 상태가 다르고, 살 때는 몰랐던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차를 사러가기도 힘들고, 인터넷에 소개된 사고 판별법 등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없다면 적용하기도 힘들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전문지식 없이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중고차 안전구입 10계명'을 소개한다.



1 원하는 차량을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에서 검색한다. 무사고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1년에 2만km 정도로 계산한다.

2 조건에 맞는 3대 이상의 차를 찾아 평균 가격과 가장 많은 가격대를 산정한다.

3 가급적 해당 차량 소유자들과 직접 통화를 통해 사고 유무와 주행거리 등을 확인한 뒤 가격을 조정해본다.

4 자동차등록증과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받는다. 이 때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개인이나 중고차딜러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5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차량번호만 알면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이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6 등록증으로 연식과 승차정원 및 배기량을, 성능점검기록부로 주행거리 및 사고유무, '카히스토리'로 보험처리된 사고 여부를 각각 살펴본 뒤 구입 여부를 검토한다.

7 사고가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차로 단정하지 않는 게 좋다.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도장 수리도 사고로 나올 수 있어서다. 차 소유주와 통화한 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8 소유자와 직접 만나 차량의 외관 및 실내 상태, 등록증 및 성능점검기록부 복사본과 원본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해본다.

9 차를 팔려는 사람은 개인이든 딜러든 원래의 차 상태보다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차 상태가 마음에 들더라도 가격을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다.

10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에 대해 기재하고,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와 품질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차를 산 뒤에도 명의이전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설날을 앞두고 광주 등 전국 중고자동차시장에는 고유가와 연식변경 등으로 인해 가격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25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품암자동차매매단지 전경.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신운산복분자교

**산매**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

신운산 복분자교